



Deloitte in Media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30 호 | 2018.2.28

딜로이트 안진, 2018 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개최 (헤럴드경제, 2.22)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인은 2 월 22 일 오후 2 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기업 세무 및 재무 담당자 5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의 개회사와 조규범 부대표의 ‘2018 세계 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세무 전문가들이 세목별 강의를 진행했다. 2018 년 세법 개정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3 가지에 역점을 두고 준비됐다.

세미나에서는 최재석 상무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김희술 상무의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강의에 이어 기획재정부 세계발전심의위원회 국제조세분과 위원장이기도 한 김선영 전무와 딜로이트 관세법인 정인영 전무가 각각 국제조세와 관세 분야 강의를 진행했다.

‘첨단 회계’로 재무장한 안전회계법인 (한국경제, 1.16)

‘첨단 회계’로 재무장한 안전회계법인

로보틱스 등 감사 기술 도입
감사체계 만로 품질 강화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이 로보틱스 등 첨단감사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제재로 인한 신규감사계약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 안전은 다음달부터 감사 업무에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RPA)’을 접목하기로 했다. 딜로이트 안전이 자체 개발한 RPA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적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이다.

전용석 딜로이트 안전 회계감사본부장은 “감사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것은 기본이고 포털과 대법원 사이트에서 기사와 소송 유무 등을 수시로 자동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하면 3~4시간 등 많은 시간이 걸리고 특정 요소를 빠뜨릴 위험도 있지만 자동화하면 1~2분 만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딜로이트 미국 본사에서는 ‘스포트라이트’ 기술도 도입했다. 기업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분석해 일정 기간의 매출 및 매출원가 등 주요 항목의 추이를 실시간 보여준다. 이를 과거 추이와 비교해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 바로잡을 수 있다.

딜로이트 안전은 첨단 감사 기법으로 서비스를 차별화해 감사 품질을 높이고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회계법인은 지난해 4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여파로 신규 감사계약을 금지하는 제재를 받아 현대건설, LG유플러스, 삼성카드, 엔씨소프트 등과 재계약하지 못했다. 그러나 금지 대상은 ‘2017 회계연도’였기 때문에 ‘2018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따내는 것은 가능하다.

이정희 딜로이트 안전 대표는 “첨단 감사 기법은 시간 절감을 통한 품질 제고와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근 기자 bk11@hankyung.com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이 로보틱스 등 첨단 감사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제재로 인한 신규 감사계약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딜로이트 안전은 감사 업무에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RPA)’을 접목하기로 했다. 딜로이트 안전이 자체 개발한 RPA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적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이다.

딜로이트 미국 본사에서는 ‘스포트라이트’ 기술도 도입했다. 기업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분석해 일정 기간의 매출 및 매출원가 등 주요 항목의 추이를 실시간 보여준다. 이를 과거 추이와 비교해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 바로잡을 수 있다. 딜로이트 안전은 첨단 감사 기법으로 서비스를 차별화해 감사 품질을 높이고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딜로이트 안전 대표는 “첨단 감사 기법은 시간 절감을 통한 품질 제고와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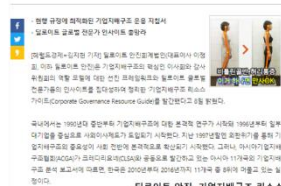
딜로이트 안전, 기업 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발간 (이데일리, 1.8)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모델에 대해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들이 정리한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를 발간했다고 지난 1월 8일 밝혔다.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운용의 원칙 및 프레임워크, 효과적인 이사회와 감독기능 모델, 리스크 감독 지침,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이다.

김준철 딜로이트 안전 기업지배구조발전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는 각국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상이한 경제 상황 및 법률체계 하에서 비롯된 관례, 행동패턴으로 인한 특정한 원칙을 설정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체의 대외 신인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발전과 진화는 필수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160 쪽 분량의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는 1월 중순부터 기업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했다.

딜로이트 안전,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발간

기사입력 2018-01-08 11:30



딜로이트 안전,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발간

기사입력 2018-01-08 11:30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모델에 대해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들이 정리한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운용의 원칙 및 프레임워크, 효과적인 이사회와 감독기능 모델, 리스크 감독 지침,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이다. 이 정희 대표는 “기업지배구조는 각국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상이한 경제 상황 및 법률체계 하에서 비롯된 관례, 행동패턴으로 인한 특정한 원칙을 설정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체의 대외 신인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발전과 진화는 필수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160 쪽 분량의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는 1월 중순부터 기업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했다.

딜로이트 안전,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발간

1월 중순부터 제공 예정

기사입력 2018-01-08 11:30 | M&A

딜로이트 안전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모델에 대해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들이 정리한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운용의 원칙 및 프레임워크, 효과적인 이사회와 감독기능 모델, 리스크 감독 지침,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이다. 이 정희 대표는 “기업지배구조는 각국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상이한 경제 상황 및 법률체계 하에서 비롯된 관례, 행동패턴으로 인한 특정한 원칙을 설정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체의 대외 신인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발전과 진화는 필수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160 쪽 분량의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는 1월 중순부터 기업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했다.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모델에 대해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들이 정리한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운용의 원칙 및 프레임워크, 효과적인 이사회와 감독기능 모델, 리스크 감독 지침,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이다. 이 정희 대표는 “기업지배구조는 각국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상이한 경제 상황 및 법률체계 하에서 비롯된 관례, 행동패턴으로 인한 특정한 원칙을 설정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체의 대외 신인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발전과 진화는 필수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160 쪽 분량의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는 1월 중순부터 기업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했다.

일과 개인 삶의 시간 비율 83 대 17...고장난 '워라밸' 시계 (동아일보, 1.30)



[2020 행복원정대: 워라밸을 찾아서]
 한국인 근로시간 너무 길어 개인 삶과 균형 '워라밸' 붕괴
 가족과 보내는 시간 길수록 행복지수 높아져 균형 절실
 “너, 행복하니?”

가족이나 친구가 묻는다면 “월급쟁이가 뭘, 건물주라면 모를까”라고 반문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친구의 친구’ 사례처럼 “비트코인 7000 만 원어치를 사놓은 게 21 억 원이 됐다”고 답할 수 있다면 행복하지 모른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은 대박의 꿈보다 훨씬 현실적인 행복에 목말라 있다. 엄연한 법적 권리인 휴가를 쓰려면 상사 눈치를 살펴야 하고, 잦은 회식에 과로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차 국정목표로 ‘삶의 질 개선’을 제시했다. 기업들도 앞다투어 ‘유연근무제’ 등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워라밸은 실제 행복과 직결된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딜로이트 컨설팅과 함께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동아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행복도가 높았다. 가족과 하루 3~6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100 점 만점에 62.15 점)은 1~3시간(59.36 점), 1시간 미만(50.24 점)인 사람보다 행복감이 컸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에게 워라밸은 여전히 ‘친구의 친구’ 얘기다.

딜로이트 안진, “이제는 테크핀이 대세, 금융서비스 규제 완화해야” (파이낸셜뉴스, 1.11)

딜로이트 안진 "이제는 테크핀이 대세, 금융서비스 규제 완화해야"
 2018.01.11 18:14 | 수정 : 2018.01.11 18:14

최근 몇년간 금융 서비스에 IT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가 대세였다면 IT 서비스를 접목한 테크핀이 금융시장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11일 2018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금융·기술 보고서에서 “중국은 정부 주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테크핀이 세계 최대 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를 비롯하여 바이두, 텐센트 등 IT 기업이 테크핀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 “중국은 IT 기술이 있으면 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을 주도하는 공룡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서비스 관련 규제 변화는 유럽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최근 개정지불서비스 법안(Revised Payment PSD2)을 발표해 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주도하기 위한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기관 플랫폼으로 규정한 것으로 금융시장과 기업들 모두 환영해서 시장 참여자를 생산자, 고객과도 실질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금융서비스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최근 Kevin Nixson 딜로이트 규제전략센터 글로벌 및 지역 특화 “각국의 규제 수준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2019년에도 금융서비스 산업의 리스크 증가, 국제 표준 확립의 불확실성, 규제의 복잡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런데서 보고서는 한국의 금융서비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케빈 닉슨(Kevin Nixson) 딜로이트 규제전략센터 글로벌 및 지역 특화 “각국의 규제 수준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2019년에도 금융서비스 산업의 리스크 증가, 국제 표준 확립의 불확실성, 규제의 복잡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소비자의 접근을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 플랫폼으로 규정한 것으로, 비금융 플랫폼이 금융시장과 거래를 주도하면서 시장 참여자를 생산자, 고객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서비스 관련 규제 변화는 유럽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최근 개정지불서비스 법안(Revised Payment Service Directive: PSD2)을 발표해, 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허용했다.

이러 “중국은 IT 기술이 있으면 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를 완화해 테크핀이 세계 최대 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를 비롯하여 바이두, 텐센트 등 IT 기업이 테크핀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IT 기술이 있으면 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를 완화해 테크핀이 세계 최대 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를 비롯하여 바이두, 텐센트 등 IT 기업이 테크핀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서비스 시장 트렌드가 ‘핀테크’에서 ‘테크핀’으로 바뀌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첨단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지난 몇 년간 금융 서비스에 IT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FinTech)가 대세를 이뤘다면, 지금은 IT 기술에 금융 서비스를 접목한 테크핀(TechFin)으로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딜로이트 글로벌의 ‘2018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금융서비스 규제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테크핀을 활성화한 케이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 최대 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를 비롯 바이두, 텐센트 등 IT 기업들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핀테크를 주도하고 있는데, IT 기술만 있으면 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를 풀어준

중국이 현재 세계 테크핀 시장을 주도하는 공룡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아마존, 삼성 등의 기업도 최신 IT 기술과 금융서비스를 접목해 모바일 결제부문의 사업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8년 글로벌 금융 서비스 규제를 결정하는 상위 10가지 주제를 '글로벌 규제 미래, 문화 및 행동, 데이터 및 디지털 변혁, 새로운 구조적 위험' 등 총 4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금융 서비스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불확실성, 복잡성에 따른 규제 이행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2027년까지 아·태지역 국가들은 유로존, 북미지역에 비해 고령인구 증가가 가장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같은 현상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게 위험요소임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 창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about our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This communication is for internal distribution and use only among personnel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None of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1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